

계시와 신비 체험

정 학 봉

· 서울 제자훈련원 원장
· 대신대학 신학부 교수

목 차

서 론	(2) 마감 현상
	(3) 자감 현상
I. 계 시	III. 신비 체험의 신앙적인 수용
(1) 하나님과의 사귄의 단절	(1) 역사 진행의 사이클(cycle)
(2) 하나님의 자기 계시	(2) 역사 섭리의 성취
(3) 하나님 계시의 완성	(3) 그리스도의 일꾼
II. 신비 체험	결 론
(1) 영감 현상	

서 론

현대 사회의 가속도적인 변화와 이런 급진적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정신적 불안의 시대에 처한 인류 사회에 무속 신앙(巫俗信仰)을 위시한 모든 종교들이 동시에 부흥하는, 역사에 드문 현상들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종교들에서 그들 신자들의 신비 체험에 근거한 신앙에 몰입하는 신비주의(神秘主義, mysticism) 사상 때문에 그들의 신앙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 대낮같이 밝아지는 현실 사회의 풍조에 역행하는 신비주의와 신화같은 이야기가 유행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지만 엄연히 이 극단적인 대립의 현상들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부인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기독교계에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자칫 잘못하면 미신적

인 신앙으로 인도할 가능성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들이 성경을 유일한 신앙과 생활의 표준으로 삼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계시(啓示, Revelation)와 신비 체험의 구별된 이해가 필요하다.

I. 계시(啓示, revelation)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머리 속에 인간의 지성과 체험의 한계를 초월한 사건들에 대하여서는 함부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나 자기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체험하는 신비 체험에 대하여서 판단하는 것을 기피하게 된다.

이런 영적인 세계와 신비 체험의 무지 때문에 “계시”라고 말하면 밋모섬에서의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처럼 이상한 현상을 본다거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신비 체험을 수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 “신비 체험”이라고 말하면 이를 체험한 사람들은 모두 성령의 역사로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여러 가지 신비 체험의 패턴을 논하기 전에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계시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하나님과의 사권의 단절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도덕적인 인격자(人格者, person)로 사람을 지어서 그 사람에게 자신의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관리케 하는 청지기(steward)로 사역하게 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과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 양식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創造秩序, Creational Order)에 따른 주종 관계(主從關係)이며 이런 관계 유지가 자연스러운 자세가 된다.

하나님과 사람과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 양식에서의 “사권”(Partnership-Mon. Communion-TCNT, 요일 1:3)은 각자의 서야 할 위치에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의 만물의 주인이시며,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들을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 청지기이며, 피조 세계는 관리자의 선의의 관리를 받아서 하나님의 창조 의지를 실현시키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서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격자는 하늘의

“부리는 영”으로서 “천사”(天使, angel, 히 1:14)와 지상에서의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한 “사람”(man, 창 1:26) 뿐이다.

그런데 먼저 지음받은 천사 루시퍼(Lucifer)가 자신의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망각하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사 14:14)는 허망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대항하는 반란을 일으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유 1:6)로서 하나님과의 사귄의 세계에서 추방되어 오늘의 악한 세력의 두목인 사단(Satan)이 되었다.

여기서 피조물인 천사가 자기도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인격자라는 생각에서 하나님과 비기겠다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의 자신의 지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동등하겠다는 말이며, 이제는 제멋대로 살겠다는 자아중심주의(自我中心主義)의 인본주의(人本主義, humanism)로 전락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타락한 천사인 사단이 하나님의 지으신 동산에서 아담에게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창 3:5) 보라고 유혹하였다. 이렇게 유혹받은 인간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 보겠다는 허망한 생각 때문에 사단의 타락의 패턴에 따라 하나님 중심주의에서 자아 중심주의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렇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이탈하여(Out of Order, 고장의 의미) 자신의 지위(地位, position)를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서의 사명적인 역할(役割, role)을 감당하지 못하게 됨으로 하나님과의 사귄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다.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먼저 영적인 안목이 닫혀지고 세속적인 안목으로서의 “그들의 눈이 밝아”(창 3:7)졌다고 하였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롬 3:23) 되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엡 2:3)의 신분으로 전락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피조물들에 대한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되었음으로 “땅은 저주를 받고”(창 3:17),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자리까지 이르러서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을 하게 되었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롬 8:20~22)을 보게 되었다.

이런 모든 저주스러운 결과는 인간의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죄(sin against God)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귄에서 축출(ex-communication, 출교의 의미)되었기 때문이다.

(2) 하나님의 자기 계시

사람의 전적인 타락(全的墮落, Total Depravity)으로 영적인 무능력자가 되어 세속적인 일에는 현명해져서 오늘의 자아중심주의의 세속적인 본주의(世俗的人本主義, Secular Humanism)를 발달시켰으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말았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심령 속에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전 3:11)이 있기 때문에 그 본능적인 종교적 욕구를 추구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인간으로서 우상 숭배로 전락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려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롬 1:21~23)고 증언하였다.

그 우상 숭배의 극치가 마침내 사람이 세상의 누구나 어떤 것보다도 자기를 절대화하고 자신의 지식과 판단과 능력을 절대 신임하는 자아 우상 숭배(自我偶像崇拜, The Cult of Self Worship)에 까지 전락하게 되었다.

이런 현상이 성경에서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문명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당시의 자아중심주의 문명의 극치는 창세기 11:4에서 보는 것처럼 우상 숭배의 제단으로서의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우리 이름을 내고”라는 명예욕(名譽慾)에 사로잡혔고, “땅에 충만하라.”(창 1:28)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생각에서 하나님께 집단 반항을 하는 데서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역사상에서는 고대 헬라 역사에서도 나타나 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유대인들은 종교성이 강했기 때문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라고 하였고, 헬라인들은 인본주의적인 철학을 추구했기 때문에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전 1:22)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당대의 프로타고라스(Protagoras, BC 480~410)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尺度)”라고 말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나 객관적인 진리보다도 모든 사물과 진리는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이해되고 평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런 인간 중심의 사상이 서양의 전통 문화는 소크라테스(Socrates, C. 400 BC) 시대로부터, 하늘과 땅의 이야기들로부터 인간 자신에게로 그 사상의 방향이 전환되어 인본주의 사상이 부흥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인본주의적인 사상의 발달은 이 지상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나 영적인 역사의 무지로 전락하게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계시를 하심으로 이 지상에서의 영적인 역사를 시작하셨다.

이때로부터 어거스틴에 의한 개념, 즉 하나님나라로서의 신국(神國)의 역사는, 세상의 세속적인 나라로서의 지국(地國)을 순례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한 인도하심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역사의 종말까지 순례하고 있다. 신국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계시적인 사건들로 오늘날까지 지속되어 왔고 또 역사의 종말까지 지속되어질 것이다.

그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엡 2:1) 상태에서의 인간의 역사는 마침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고전 1:2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눈을 밝히사”(엡 1:17~18) 영적인 역사를 사역하게 하였다.

(3) 하나님 계시의 완성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할 때에 어떤 신비 체험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계시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원래 “계시(啓示, revelation)”라고 말할 때에 그 원어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현실을 깨닫게 하는 역사를 말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마 11:27)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엡 1:17)라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이 영적인 진리와 현상들은 인간의 지식으로 추구하는 과학적인 방법이나, 지혜로 추구하는 철학적인 사색으로 추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고전 1:21)라고 단정하였다.

이렇게 모든 영적인 사역은 세속적인 지식이나 지혜의 추구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聖靈, Holy Spirit)의 역사로 만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하여 한 사람의 신앙 고백도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믿게 하시는 역사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主)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전 12:36)고 하였다.

예수님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지역과 다른 문화적인 환경에서 사신 분이요, 또한 약 2천 년 전에 사신 분이데, 그런 분이 우리 자신의 구주로 믿어지는 것은 과학적인 이해나 철학적인 사색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믿어지게 하시는 계시적인 역사로 알게 되고 믿어진 것이 분명하다.

성령에 증거되어 있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이나 사실들에는 우리들이 배우고 이해하는 사람들의 합리적인 사고 방식으로서로는 수궁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의심 없이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적인 역사로 가능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합리적인 사고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든지, 못 되든지에 관계 없이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성경의 저자가 알든지 모르든지에 관계없이 성경에 포함시키기를 원하셨던 진리를 그 사람들에게 계시하여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이 모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히 1:2)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의 인류 구원 사역의 계시를 완성하셨고, 이 사실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기록된 성경을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셨고(딤후 3:16), 이 성경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셨다(요 5:39). 여기서 계시라는 낱말의 신학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시는 전체적 과정(全體的過程, Whole Process)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방법은 성경에도 너무나 다양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것만이 계시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직접, 또는 다른 사람들이나 천사들을 통하여 자신을 알리고 자신의 뜻을 전달한 일도 있으시고, 어떤 사건이나 현상들을 통하여 깨닫게도 하셨고, 때로는 신비한 체험이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마음속으로부터의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다.

그러나 궁극적인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요 1:14) 예수 그리스도의 수육신(受肉身, incarnation) 사건으로 완성하셨다. 그리하여 예수님 자신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요 14:6)고 증거하셨다.

그러므로 진리를 이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기 현현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계시와 신앙 생활에서 신앙의 확신을 더해 줄 수 있는 신비 체험과는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Ⅱ. 신비 체험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이제까지의 정상적인 체험으로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체험들을 많이 보게 된다. 물론 그런 체험들 중에는 자신의 착각이나 잘못된 판단으로, 신비로 규정지을 수도 있겠지만 그중에는 정말로 사람의 상식과 능력을 초월한 신비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건들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람은 자신의 수용할 수 있는 지식이나 한평생을 살면서 체험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수준의 지식으로는 이해치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 이런 일들을 일괄적으로 신비(神秘, mystery)라는 말로 표현한다.

그리고 이런 신비스러운 일들을 체험하고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는 신비주의(神秘主義, mysticism)는 사람의 상식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 신비적인 일들의 근본은 알 수가 없는 것이 우리들의 실정이다. 그러므로 신비 체험을 한 사람들은 자신의 신비 체험에 근거하여 그것을 진리로 확신하고 자신있게 증거하지만 이런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세계의 체험이기 때문에 선악간에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체험했다는 신비 체험의 유형들이 각기 다르다는 것과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른 신비 체험의 감수성(感受性, sensibility)의 차이 때문에 모두 제각기 다른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사람들의 신비 체험들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신비 체험들의 주체가 누구이며, 그 신비스러운 사건들이 전달되어 사람들에게 체험이 되어지게 하는 과정과 그 신비 체험을 하게 되는 사람의 신비에 대한 감수성의 정도 등에 따라 그 신비 현상들을 몇

가지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신비주의의 신비 현상에 대하여 우리는 먼저 영계의 선의 세계로서의 하나님의 세계와 악의 세계로서의 사단의 세계가 존재함으로 먼저 하나님의 세계에 근원을 둔 성령의 감동 현상으로서의 영감 현상(靈感現像)과 사단의 세계에 근원을 둔 사단의 감동 현상으로서의 마감(魔感現像)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성령의 세계나 사단의 세계의 현상 외에도 자신의 잠재 의식 등이 어떤 상황의 변화에 따라 신비 체험과 같은 체험을 하게 되는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현상을 자감 현상(自感現像)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제 이 신비 체험의 세 가지 현상에 대하여 하나씩 연구해 봄으로써 우리들이 신비 체험을 이해하게 되고 신앙을 지켜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1) 영감 현상(靈感現像)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신비 세계의 체험은 체험한 사람들 자신들이 성령의 체험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를 시인도, 부인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체험하는 그 신비 체험이 성령의 감동으로 체험하는 영감 현상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계시의 완성인 성경의 원리와 같아야 하지만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받은 영감(靈感, inspiration)과 같은 차원의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실 신비 체험을 할 때에 자신의 체험이 영감된 말씀인 성경보다 앞서고 더 확신이 갈 때에는 그 자체가 신앙이 잘못되어지는 증거가 된다. 당사자의 경우는 성경에 없지만 내가 직접 환상을 보고, 신비한 음성을 듣고 체험했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비 세계를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어떤 신비 체험이라도 결코 계시의 완성으로서의 성경의 권위와 동등하게 생각하거나 또는 능가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영감 현상을 체험하는 신비 체험은, 그 내용과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리스도인 개인의 신앙이나 교회의 복음 사역에 유익하고 덕을 끼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만한 태도나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有益)하게(For the common good-Phi., For profit of all-Con.) 하려 하심이라”(고전 12:7)고 말씀하였고, 좀더 구체적으로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德)을 세우기 위하여(For the common good-Bas., Must he useful to all-Tay.) 하라.”(고전 14:26)고 권면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신비 체험의 근원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마 7:20)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 6:7)고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체험한 후의 결과를 보고 판단할 수가 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신비 체험한 사람들의 사례들을 연구해 보면 신앙과 사명의 확신을 더해 주는 결과를 보게 되며, 또한 헌신의 계기도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성취에 그 사역의 목표를 두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 사례들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사례 1.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라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의 기사에서 볼 수가 있다(눅 9:28~36).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났으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말씀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음성도 듣게 되었다.

이런 신비스러운 체험을 통하여 사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신앙을 더욱 확실하게 할 수 있었으며 전보다 더욱 헌신할 수 있게 되었다.

사례 2. 기독교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 사이에서 전파되었는데 이방인 전도의 문제의 벽에 부딪혔을 때에 사도 베드로가 비몽사몽(非夢似夢, fell into a trance, 행 10:10)의 형상을 체험하고 이방인 선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선교하는 데 헌신하게 되었다(행 10장).

사례 3. 사도 바울이 체험한 주의 환상(幻想, vision)과 계시(啓示, revelation)가 많은데, 특히 셋째 하늘에 다녀온 체험에서 사람이 자기를 의식하지 못할 상황에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도 듣고 돌아왔다. 아무리 사도 바울일지라도 이 많은 신비 체험들이 사도 바울로 하

여금 “너무 자고(自高)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고후 12:7)라고 고백하였다.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확신과 그 많은 영감 현상의 신비 체험들을 많이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인류 구원 사역의 성취를 위하여 “나의 달려 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 20:24)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다.

(2) 마귀 현상(魔感現象)

신비 체험의 근본이 성령의 사역으로 체험한 사람들은 결코 자고하지 않고 신약 시대의 복음 사역의 주체로 사역하게 하신 교회에 덕이 되게 하고 자신에게도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여, 먼저 신앙적인 확신과 주님께 대한 헌신의 다짐이 이루어지며, 또한 하나님의 역사 섭리적인 뜻을 성취하게 된다.

그러나 똑같은 신비 체험일지라도 그것이 사단의 사역의 결과로 나타나고 체험하게 될 때에는 먼저 자신이 교만해지고 봉사보다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결과적으로 신약 시대의 하나님 사역의 주체인 교회를 헐게하고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임 맡은 목회자의 영적인 권위를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마귀(魔鬼, Satan)와 그의 종개들인 귀신들(鬼神, demons)이 이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신비적인 사역으로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고후 11:14)하여 이상한 환상을 보게 하며, 또 이상한 음성을 듣게 하여 그런 체험들이 하나님의 계시나 성령의 감동의 역사를 하는 것으로 이해시켜서 신비 체험자들과 교회를 혼란케 만들고 있다.

우리 나라의 민속 신앙에도 정상적인 사람이 무당(巫堂, medium)이 될 때에 “신(神)이 내린다”는 말이 있다. 사람에게 따라서는 무당이 되면 사람들에게 멸시받게 되고 신들린 집안이란 말을 듣는 것이 싫어서 무당이 되지 않으려고 하여도 이상하게 원인도 모르는 병으로 시달리고, 때로는 무의식 상태의 비몽사몽(非夢似夢)의 상태(A trancelike state of unconsciousness)에서 헤매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자연계의 소리가 아닌 분명치 않는 소리가 들리다가 점차로 분명한 초자연적인 소리가 들리는 환청 현상(幻聽現

像, Clairaudience)을 체험하게 되고, 심지어는 자연계의 현상들이 아닌 것들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환각 현상(幻覺現像, clairvoyance)를 체험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려서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초인적 능력(超人的能力, Supernatural Power)을 과시할 수 있는 현상도 나타나게 되며(막 5:4), 사람의 상상도 초월하리 만 큼 상대방의 모든 것을 알아내는 영적 통찰력(靈的洞察力, Spiritual Insight Power, 막 5:7)을 가져서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도 한다.

그리고 사람들의 과거와 미래를 비밀한 것까지 족집게로 집어내듯 알아내고 맞히는 “점하는 귀신”(A Spirit of Divination, 행 16:16)이 내리면 무당(巫堂, medium)이 되어 다른 사람의 운명도 예언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재래적인 무속 신앙에서의 악령들의 역사가 현재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어서 교회를 혼돈케 만들어서 교회의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진리에서 떠나 탈선하는 일들을 하게 하는 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다. 예언이라는 이름으로 점(占)치고, 은혜 받는다거나 또는 입신(入神)이라는 이름으로 무당 굿하는 영매술(靈媒術, Spiritualism)을 시행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

이런 현상들은,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은 “영들 분별”(고전 12:10)의 은사를 가졌으므로 쉽게 분별할 수 있지만 일반 교인들은 신비하다는 그 자체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

우리는 이런 영계의 사역에 대하여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시험하라.”(요일 4:1)는 권면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미 “성령이 밝히 말씀 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딤후 4:1)고 마지막 때에 나타날 영계의 현상에 대하여 예언하여 두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런 마감 현상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이나 다가오는 미래에 대하여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구들을 충족시키면서 점진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에서 벗어난 길을 따르게 한다. 그런데 이런 무속 신앙적인 신비 체험과 이들의 말을 따르는 자들은 “미혹케 하는 영”(딤후 4:1)에 미혹되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으로서의 성경의 교훈보다도 자기들이 듣고 보았다는 신비 체험에

더욱 확실한 신앙적인 근거로 삼는다.

사도 요한은 이런 마감 현상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요일 4:6)고 증언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탈한 교훈은 그가 아무리 훌륭한 신비 체험을 하였고,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정확하게 맞춰도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마귀의 감동의 형상에 불과한 일이라는 것을 단정할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영적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와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마 7:22~23)고 단죄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렇게 마귀의 감동을 체험한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진리의 표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한다. 인류의 조상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데서부터 하나님께 대항하는 죄(sin against God)를 범하게 하였고, 타락한 이후의 인류의 역사는 사실상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역사들이었다. 오늘날에도 믿음 밖에서는 물론, 신앙 세계 안에서도 자신의 생각이나 체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우고 살아가고 있는 수가 많다.

둘째로,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인류 구원 사역의 주체인 교회(教會)를 허는 일을 하게 되며, 그 방법이 교역자의 영적인 권위를 무시하고, 당파를 짓고 분열을 일삼아서 교회의 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

셋째로, 교회와 사회를 혼란케 하고 미혹하게 만든다. 그러지 않아도 사람들의 생각이나 생활의 표준을 상실한 시대에 불확실한 세상을 더욱 방황과 혼돈을 초래하게 하여 말세의 징조들을 가속도적으로 실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3) 자감 현상(自感現象)

이제까지는 신비 체험이라고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영감 현상과

사단이 역사하는 마감 현상의 두 가지로만 구분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반드시 양분되는 선악의 영계의 역사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체험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것은 자의식(自意識, self-consciousness)의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현상을 자감 현상(自感現象)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다.

최근에 와서 국제 사회의 급격하고도 가속도적인 변화를 하게 됨에 따라 구태여 어떤 예언들에 의존하지 않고 예감적으로도 세계사의 큰 변동이 예견되는 시대이므로, 누구나 다가오는 미래의 사건들을 알고 싶고 세계의 종말에 대하여 알고 싶은 것이 사실이다.

사람으로서는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나아와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마 24:3)라고 질문하였고, 또한 평소의 메시아 왕국에 대한 기대가 실현되는 것이 궁금하여 승천하시는 주님에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행 1:6)라고 물어 보았다.

이렇게 개인의 운명이나 종말의 역사에 실현될 사건들이나, 또한 영계나 천당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원하고, 알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자기가 궁금하게 여기고 알기 원하는 일들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된다.

이런 자의식(自意識)이 집중되어 언제나 자신의 목적하는 것만을 생각하고 기대하여 그 자의식이 포화 상태(飽和狀態, Saturation)가 되었을 때에 그 포화 상태가 된 자의식이 잠재 의식(潛在意識, subconscious)화 되었다가 어떤 경우에 결정체화(結晶體化, crystallize) 현상이 나타나서 전혀 다른 상태의 체험을 하게 된다.

이때에 자연 현상으로는 들을 수 없는 음성이 들리는 환청(幻廳, clairaudience) 현상과, 자연 현상으로는 전혀 볼 수도 없는 환상을 보게 되는 환각(幻覺, clairvoyance) 현상을 자기가 잠재 의식적으로 기대했거나 또는 그 이상의 것들을 체험하게 된다. 그 이상이라는 말도 자신의 잠재 의식과 기본적인 지식과 체험 등의 상승 작용(相乘作用, multiplication)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른 체험을 하여도 기본적으로는 자의식의 또 다른 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체험을 하나님의 계시로 생각하고 그 신비 체험때에 보았던 일이나, 들었던 말들을 절대적인 진리요, 기준으로 생

각하고, 그런 것에 근거하여 자신의 생각을 그것에 맞추고 그것에 맞는 행동들을 하게 된다.

여기서 먼저 결정체화(結晶體化) 현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물리계에서는 수증기가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면 기체였던 수증기가 차원이 전혀 다른 액체로서의 물이 되고, 또 기온의 변화에 따라 고체로서의 이름이 되는 현상을 말한다. 수증기나 물이나 얼음의 본질은 같은 것이지만 결정체화 현상으로 전혀 다른 형태의 물질이 되는 것을 말한다.

숯이나 흑연이나 다이아몬드의 성분은 모두 똑같은 탄소(炭素)이지만 고온에서 기화된 탄소가 온도와 기압의 급격한 변화에서 결정체화 현상으로 인조 다이아몬드가 생성된다. 똑같은 원소들이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물질로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런 현상이 사람의 심리나 의식에도 같은 원리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에 순수한 마음으로 꼭 천국을 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성경이나 간증서 등에서 천국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기도에 집중하면 포화 상태에 이른 천국에 대한 자의식이 결정체화 현상을 일으킬 때에 전혀 차원이 다른 세계를 보게 되고 이상한 음악이나 음성을 듣게 된다.

최근에 와서 천국도 입국 사증(入國査證)인 비자(visa)를 잘 준다는 느낌을 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다녀왔다는 간증 집회들을 하고 있는데 이상한 것은 그들이 한결같이 다른 번지수의 천국을 다녀온 것처럼 각기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 이유는 포화 상태의 자의식의 결정체화 현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각기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세계는 감각적인 세계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전 2:9)고 증거하였다. 확실히 하나님의 세계는 감각적인 세계 이상의 존재인데 사람의 말 재간으로만 천국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임에 틀림이 없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시한부 재림설(時限附再臨說, Dated Adventism)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딤후 6:5)의 고의적인 사기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아”(딤후 4:1) 마감 현상을 신비 체험

으로 주장하는 자들도 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말세에 대한 관심과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자감 현상의 신비 체험을 하면서 몇 연도에 오신다거나, 심지어는 어느 날 어느 사이에 온다는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어서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자감 현상을 체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속이거나 해를 끼칠 의도는 없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체험한 자감 현상 사실들을 하나님님의 영감으로 착각하여 믿기 때문에 자신이 겪은 신비 체험을 절대적인 것으로 주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순진하게 사모하는 많은 사람들을 속이게 되고 실망을 주게 된다.

우리는 이런 신비 체험이라고 볼 수 있는 현상들은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또는 자감 현상인지 확실하게 구별짓기 힘든 때가 많은데 인내력을 가지고 기다렸다가 그 결과로서 판단해야 될 것 같다.

언젠가는 나이 많은 외국인까지 데려다가 천당 소식을 듣겠다고 야단법석을 떨었는데, 불행하게도 신비 체험을 무조건 성령의 역사로만 생각했던 교역자들이 그 분을 자기 교회에 초청하려고 법석을 치던 웃지 못할 사건도 있었다. 그 사람의 천당 소식이 뒤죽박죽된 이야기였어도 그 분을 천국의 사자로 대우하면서 말이다.

Ⅲ. 신비 체험의 신앙적인 수용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다양한 신비 체험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를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물론 자신이 원하여 할 수 있는 체험이면 그대로 수용할 수 있겠지만,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던 신비 체험의 경우는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해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씀이다.

사람이, 자신이 체험하는 모든 체험들은 그 근원이 어디에서 기원하였든지에 관계 없이 자신의 체험들임에는 틀림이 없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런 체험들을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는 여부는:

첫째로, 이 체험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자신의 만족도나 호기심 충족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맞을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 또한 이 체험들의 결과가 먼저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일이다.

둘째로, 자신의 체험이 성경적인 원리에 맞는지 여부를 가려 보아야 한다. 성경에서의 성령의 역사하심은 믿는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는 일(고전 12:7)이며, 덕을 세우는 일이며(고전 14:26), 또한 영적인 질서를 지키는 일(고전 14:40)인데, 이런 기본적인 원리에 부합되는 일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셋째로, 자신의 체험이 교회와 사회에 유익되고 덕이 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일이다. 아무리 자신에게는 흥분될 수 있는 체험일지라도 교회나 사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이라면 그대로 자신의 신비 체험으로만 간직하고 그 체험이 신앙적인 확신과 주님께 더욱 헌신하는 계기로 수용하면 좋을 것이다.

필자의 목회 중에 체험한 사례:

오랫동안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기도하고 전도했는데 이미 다른 종교를 신봉하기 때문에 번번이 거절당한 일들이 있었던 젊은 부인인데 무당신이 내리는 체험을 하였다. 그 부인은 몸이 아픈데 무슨 약을 써도 듣지 않고 이상한 힘에 눌리고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그 부인은 원래 자기 집안에 내력에도 없었던 무당신이 내려서 자기가 무당이 되게 되면 자신이 사회적으로 받을 냉대와 남편의 체면도 중요하게 생각되었지만 자신의 자녀들의 앞날이 막히게 될 것을 염려하기에 이르렀다.

이번에는 오히려 그 부인이 저에게 찾아와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 하고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려 달라고 요청하였다. 교회 심방대원들이 그 가정을 방문하여 먼저 악령들이 역사할 수 있는 근거로서의 지신(地神)을 모신 터주가리를 철거하고 집을 지키는 성주대와 안방을 관장하는 삼신 주머니와 각종 부적들을 철거하고 불태워 버렸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모든 교회의 집회에 빠지지 말고 잘 참여할 것을 권면하였다. 필자의 판단에도 신비 체험에 대한 감수성이 강하게 생긴 그 부인이 자신과 가족의 장래 문제 때문에 열심히 신앙 지도를 받으면서 주님께 헌신하여 지금은 손자까지 두게 되었는데 아무런 일이 없이 잘 지내고 있다. 이 부인은 비록 신앙의 내용은 잘 몰랐어도 마감 체험을 신앙으로 물리친 사례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체험하는 신비 체험은 먼저 영감 체험은 유익하고 덕

이 되도록 수용할 것이며, 마감 체험은 과감하게 배척하고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신비 체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체험담들은 중립성의 자감 체험이다. 자감 체험은 체험 그 자체로서 수용하고 그런 체험들을 자신의 신앙적인 확신과 성숙한 성장과 주님께 대한 헌신하는 동기로 활용하게 되면 더욱 크게 유익한 체험이 될 수 있다.

한 가지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은 자신의 체험한 체험들은 계시의 완성으로서의 성경적인 기준에 감히 비견하거나 넘어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이 체험할 수 있는 신비 체험들과 하나님의 역사 성취와의 관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 역사 진행의 사이클(cycle)

사람에 따라 자신의 보는 시각에서 역사 진행의 패턴을 설명하겠는데 여기서는 신비 체험과 관계될 수 있는 인격적인 요인들과 관계지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사람의 인격의 삼대 요소가 지·정·의(知情意)라고 말한다면 사람이 자신의 하는 일을 의지적으로 결정할 때에 지적인 요인(知的 要因)과 정적인 요인(情的 要因)이 함께 작용하게 된다.

그런데 역사에 보면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정적인 욕구를 더 요구하는 때가 있고, 또 지적인 욕구를 더 요구하는 때가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이런 현상이 기독교의 초기 역사에서 예수님 시대에는 순수한 천국 복음을 통한 신앙 체험과 감성(感性)적인 신앙 운동의 경향이 강했지만, 사도들의 시대에는 그 체험적인 신앙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지성(知性)적인 운동의 경향이 더 강해진 것을 볼 수가 있다.

중세 시대의 종교적인 압박에서 해방되었던 종교 개혁 시대에는 제각기 자기들의 믿는 신앙고백을 발표할 신앙고백주의(confessionalism) 운동의 지성적인 신앙 운동의 시대였지만, 이런 운동도 어느 정도 지속되다가 형식적인 고백으로만 전락하게 될 때에 구라파에서 경건주의(敬虔主義, pietism)의 감성적인 운동이 일어났다. 언제나 감성적인 신앙 운동은 신비 체험의 부흥 현상을 보게 되는데 이런 주관적인 신비 체험은 신앙 자체를 무속화시키거나 기복 종교로 전락하게 만든다.

그때에 다시 이런 신앙에서 무지하게 보이는 신앙 운동을 지성적인

방향으로 옮겨지게 하는데 계몽주의 운동(啓蒙主義運動, Enlightenment Movement)이 일어난 사실을 볼 수가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해방 직후의 사회적인 혼란과 한국 동란의 난리 속에서 모든 것을 상실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감성적인 신앙 운동이 부흥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신앙적인 분위기에서는 기복 종교(祈福宗教)적인 양상의 신앙과 신비주의의 체험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경향이 기도원 운동을 크게 일으킬 수 있었고, 각종 신비주의 체험들을 많이 하게 되었고, 자신의 이성(理性)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체험 때문에 자신이 직접 보고 들었던 그런 체험들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그런 생각들이 성경의 교훈과 상치 될지라도 그런 체험들을 더 확실한 신앙적인 근거로 삼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감성주의 신앙 운동의 한 세대가 지난 다음에 한국 교회들은 성경 공부 운동(聖經工夫運動, Bible Study Movement)의 지성적인 방향으로 서서히 움직여 가고 있다. 구라파 역사에서의 고백주의나 계몽주의의 지성 운동보다도,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지성적인 운동으로 방향이 전환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한국 교회로서는 지극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런 흐름으로 볼 때에 지금의 말씀 연구의 열정이 또 한 세대가 지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만 그치게 될 때에는 다시 감성적인 신앙 운동으로서의 경건주의나 신비주의 운동이 일어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균형 잡힌 신앙 운동은 말씀 연구 중심의 지성적인 신앙 운동과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감성적인 신앙 운동과의 조화를 이룩하게 하는 데 있다. 그것은 감성에 치우치면 무절제한 혼란스러운 신앙을 초래하게 되고, 지성에 치우치면 너무 냉철했어서 신앙의 화석화(化石化, fossilization) 현상이 일어나서 사실상의 죽은 신앙이 되기 때문이다.

(2) 역사 섭리의 성취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創造秩序, Creational Order)에 따라 자기들의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며 자기들 나름대로의 존재 의미를 찾도록 하는 데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자연계의 역사나 인류의 역사는 결코 우연한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 진행되게 하셨기 때문에 “태초부터 만대(萬代)를 명정(命定)”(사 41:4) 하셨다는 말씀대로 이미 처음부터 역사 진행의 프로그램을 미리 정하시고 진행하도록 계획하셨다.

그리고 역사 진행의 과정에서의 만물의 생성(生成), 성장(成長), 소멸(消滅)의 전과정도 친히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롬 11:36)고 증거하였다.

이와 같이 역사 진행의 과정을 미리 예정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친히 주관하시기 때문에 사실상의 하나님의 뜻이 역사 발전의 원동력임을 확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의사관(神意史觀, Historical View of God's Will)으로 역사를 보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친히 계획하신 역사 진행의 과정에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었고 방향 감각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께서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고 계신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게 하시기 위하여 계시(啓示)라는 방법을 사용하시고 이런 사실들을 확증시키시기 위하여 사람들의 상식을 초월하는 신비 체험을 하게 하셨다.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하나님께 대항하는 죄(Sin against God)를 짓도록 유혹한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계 12:8)가 이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망그러뜨리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벧전 5:8) 삼킬 자를 찾아 다니며, 때로는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고후 11:14)하여 역사하고 있다.

그 결과로서 사단은 사람들의 상식으로 수용할 수 없는 신비의 세계들을 체험하게 함으로 믿는 자들의 신앙을 혼돈케 만들며 마침내 그들은 신앙의 세계에서 이탈하게 만든다. 그것은 마치 사단이 하나님의 질서(秩序, order)의 세계에서 이탈하여(Out of Order, 고장의 의미) 범죄한 자가 된(유 1:6) 자신의 걸어왔던 길을 따르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체험하게 되는 신비의 세계의 체험들은 때로는

자신에게는 아무런 선택의 기회도 없이 겪게 된다. 그 신비 체험의 근원이 성령의 사역에 의한 것이든지 또는 악령의 사역에 의한 것인지에 상관 없이 말이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은 원천적인 삶의 자세가 이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섭리적인 뜻을 성취시키는 사역에 헌신하여야 하므로 자기들이 살아가는 동안의 체험하는 신비 체험들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자신에게 부덕스럽고 교회와 사회에 덕을 세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고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의 하나님 사역의 주체로서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인류 구원 사역의 지상 명령(至上命令, the great commission)을 내리셨는데, 이 명령은 이스라엘 민족의 씨 개념(種概念, Seminal Conception)에 의하면 아브라함에게는 물론, 그의 혈통적인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명령도 되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인류 구원 사역의 주체는 이스라엘 민족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을 특권으로 받아들여서 여호와 종교를 편협한 율법주의 민족 종교(律法主義民族宗教)로 발전시켰으므로 마침내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서도 신약 시대에 이르러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요 영적 이스라엘인 신약 교회(新約教會, New Testament Church)에 그 인류 구원의 사명을 인계시키셔서, 교회를 신약 시대의 인류 구원 사역의 주체로 세우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신비 체험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교회를 혼란케 만들고 분열을 시키거나 교회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역사를 생각조차 할 수가 없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성령 사역은 “교회의 덕(德)”(고전 14:4)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므로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전 14:40)고 권면하였고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고전 14:26)고 권면하였다.

(3)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잘 살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지상에서의 하나님 사역의 대리자(代理者, representative)로서의 청지기(steward)로 세우셨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 사역에 헌신할 일꾼들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임을 증거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同役者, co-worker)들이요”(고전 3:9)라고 하였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Minister of Christ)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지어다.”(고전 4:1)라고 증거하였다.

여기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인데 이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였다.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비밀은 사도 바울이 직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니”라고 증거하였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골 1:27, 2:2)라고 증거하였다.

다시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비밀을 위탁받은 일꾼이라고 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성취하신 역사는 인류의 근본 문제인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구원하신 기독교 복음(基督教福音, Christian Gospel)을 말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복음의 청지기라는 말 씀이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감당해야 할 기본적인 사역에 대하여 “우리가 그(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골 1:28)고 하였다. 이 말씀을 다시 분석해 보면:

사역의 주제 —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내용

1. 전함 — 전도 — 영혼의 구원
2. 권함 — 양육 — 영혼의 성장
3. 가르침 — 영혼의 재생산

사역의 목표 —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고 하였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이 사역할 내용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고, 이 복음 사역의 내용이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성취시키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모든 일꾼들은 이 사역의 내

용들에 충실하는 것이 사역자들의 바람직한 자세가 되어야 한다.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확실하게 수행키 위하여 체험하게 하시는 신비 체험과 주객이 전도(顛倒)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생활에서의 신비 체험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 사역을 위한 섭리적인 뜻을 성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꾼들의 바람직한 자세가 될 수 있다.

결 론

사람이 한살이를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일들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이 모든 체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좀더 성숙한 인격자로 키워 주게 한다. 역사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시는 신비 체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런 신비 체험들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성장 과정이나 생활상에서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자신의 체험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 결과들을 가져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손상시키거나 교회에 부덕이 되는 체험들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자세를 필요로 한다. 단지 우리들의 사역의 기본적인 사역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다.

신비 체험이라고 말하면 무조건 성령의 역사로 생각했던 어린 신앙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마감 체험과 심지어는 포화 상태의 자의식의 결정체화 현상으로서의 자감 체험을 성령 체험으로 오해하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뜻의 실현을 위한 기본 과제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